



세계 IT거장들이 밝힌 '미래 디지털 시대'

# 무너지는 건 한순간 “1등 안주 안된다”



‘유비쿼터스 세상을 논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서울디지털포럼 2005·월드ICT 서밋’에서는 IT분야의 세계 석학, 기업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비쿼터스 디지털시대’에 대한 담론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어윈 제이콥스 쉐일 컴 회장, ‘메가 트렌드’의 저자인 존 나이스비트, 마이클 K. 파월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등의 참석으로 관심을 모은 이번 서울 디지털포럼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 석학, 퓨처리스트, 글로벌기업의 최고경영자 등이 이처럼 한국에 모여 미래를 논의하기는 드문 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행사는 미래 비전에 목말라하는 IT 관계자들의 유익한 자리로 자리를 잡았다고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큐바디스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래사회,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가까운 미래에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디지털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글 권경희 기자

# 세계석학 · 퓨처리스트 · 장관 · CEO 등 뜨거운 강연의 장... 'IT강국' 한국 위상 확인

**S**BS가 사회 환원을 위해 아낌자게 준비한 '서울디지털포럼 2005·월드ICT 서밋'이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흘 동안 뜨거운 강연의 장을 펼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통부 주관으로 세계 20여개국의 정보통신부 장관들이 모여 국가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 '월드 ICT 서밋'이 디지털포럼 행사 첫날에 개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의 IT 수장들이 국가간 디지털격차와 인프라 공유 등을 모색해 이번 행사의 열기를 더욱 높였다. 진 장관은 앞으로 이 행사를 IT분야의 다보스포럼 같은 세계적 수준의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퀴바디스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래사회의 조망'이란 주제로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 지난달 1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용경 KT 사장 등 국내 인사들과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클 파월 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 어윈 제이콥스 켈컴 회장, 마이클 파월 전 미 FCC 의장, 로버트 다울링 할리우드 리포트 발행인, '메가트렌드' 저자 존 나이스빗 등 해외 주요 IT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적 석학, 퓨처리스트, 글로벌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며 메모리 반도체와 CDMA 등의 신기술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최근엔 세계 최초로 휴대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DMB 시대를 개막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년이면 집안일을 돕고 장애인, 직장 여성, 노인들을 보조하는 100만원대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ICT 훈련센터를 인천 송도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어 전 미 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IT업계 화두는 유비쿼터스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며 미래 디지털 기술의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이어) 두 번째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기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월드 ICT 서밋' 참석한 세계 IT장관들

"차세대 IT 대통합 시대에는 기술개발보다 서비스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월드 ICT 서밋-비즈니스 포럼'에서 "최근 IT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신·방송, 유선·무선, 음성·데이터간 대통합 시대에는 기술보다 서비스 오퍼레이터들간 협력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사업허가 문제, 비즈니스모델 규제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차세대 IT산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여부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디지털TV 산업의 경우 관련 업체를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TV를 구매한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느냐를 중점으로 산업활성화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강화를 우선으로 산업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이 향후 소비자의 장비 구매를 유도하고 이것이 다시 산업체의 기술개발과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 순서로 가치사슬을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는 진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텔레콤, 팬택, 인텔, 노텔, 루슨트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글로벌 IT기업 CEO 30

여명이 패널로 참가했으며,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EUROCHAM(유럽상공회의소),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참가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진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전체회의의 3개 세션, 소그룹 회의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IT의 미래와 한국이 제공하는 기회'의 주제를론에서는 브로드밴드 보급률 및 첨단 휴대폰 사용 등을 통해 세계 첨단 IT시장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국 시장과 외국 기업의 파트너십 기회 발굴, 한국을 위한 다음 단계의 기술적 도약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진 장관도 패널로 참가해 루슨트 테크놀로지, 지멘스, IDG 등의 대표들과 토론을 벌였다. 두 번째 세션인 '3G와 이동통신의 미래'에서는 3G 투자 및 3G의 미래에 대한 통신업체의 입장, 3G 성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측면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세션에는 켈컴, 노텔, CDMA 개발 그룹, SK텔레콤에서 패널로 참가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브로드밴드 컨버전스'로 광대역 통합망의 비즈니스 소비자 측면의 효용, 광대역 통합망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3G 와이맥스·위피 네트워크의 공존 방법 등이 논의됐고 지멘스, 맥킨지, 하나로텔레콤, KTF 등의 대표가 패널로 참가했다. 소그룹 회의인 '소프트웨어 전략'에서는 오픈 소스의 장단점, 오픈소스와 안전성, 오픈소스 채택에 따른 기업의 고민과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얼네트웍스 등에서 패널로 참가했다.

두 번째 소그룹 회의인 '컨버전스 인(in) 세미콘дук터'에서는 시스템 온칩(SoC)이 전자제품의 트렌드 변화에 미치는 영향, SoC로 인해 등장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SoC의 디자인 트렌드, SoC와 반도체 산업의 통합화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팹텍 등 우리나라 기업 대표가 주요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월드 ICT 서밋 행사에 참석차 방한한 아미르자이 상인(Amirzai Sangin) 아프가니스탄 통신부 장관, 미드하스 힐미(Midhath Hilmy) 몰디브 통신과학기술부 장관, 카하나 아마자야디(Cahyana Ahmadjayadi)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차관보, 친번션(Chin Bun Sean) 캄보디아 우편통신부 차관 등 전세계 주요 IT장관들은 행사에 앞서 서울 광화문 소재 정



통부 청사를 잇따라 방문했다. 한국의 IT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가능한 분야별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주요국장·차관들이 공식적인 라운드테이블 모임 외에 별도로 정통부장·차관과의 1대 1 면담을 요구했다"며 "이런 1대 1 면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각 국 IT장·차관 회담을 통해 한국의 정보화 및 IT인프라 구축 경험과 IT발전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우리정부의 국제정보격차해소 지원 노력을 설명하면서, 국가정보화 및 IT인프라 구축관련 경험을 해당국에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노무현 대통령 서울디지털포럼서 'IT강국' 역설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 지난달 1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 "한국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벤치마킹 모델로 성장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하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서울디지털포럼은 세계 정보통신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보통신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릴 만하다"며 "한국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메모리반도체 및 CDMA 휴대폰 등 다양한 IT 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의 높은 성취 동기와 첨단 IT인프라,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넓은 소비자층을 바탕으로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주제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뒤, “행정, 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 중추분야에 유비쿼터스를 접목해 국가적인 운영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의 벤치마킹 모델 국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격차 등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늘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히면서 “차가운 디지털에 온기를 불어넣어 모두가 함께 하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할 것”이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2006년에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ICT 훈련센터’를 인천 송도에 설립,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엔 산하기구를 유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인에서 미디어 경영자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활판 인쇄술에 이어 두 번째로 전세계는 한국의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 ‘IT 코리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줬다. 특히 엘 고어는 “기술 발전만이 변화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도 디지털기술을 통해 휴머니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질문이 필요한 때이며, 수많은 기술과 도구들에 현혹된 나머지 그 목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개막총회에서는 테렉 리도우 아이서플라이 사장의 사회로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윈 제이콥스 켈컴 회장, 조지 콜로니 포레스터 리서치 회장 등이 ‘유비쿼터스의 기회와 위

협’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진 장관은 “한국은 IT839 전략을 통해 미래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휴머니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어윈 제이콥스 켈컴 회장은 “앞으로 첨단기술의 화두는 휴대폰상에서 미디어를 제공하고 구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화된 휴대폰이 유비쿼터스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제이콥스 회장은 “휴대폰과 방송이 만나면 진정한 유비쿼터스가 실현될 것”이라며 “휴대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PC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디지털 컨버전스를 4단계로 구분한 뒤 삼성전자의 유비쿼터스 전략에 대해 “마이크로 전자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곧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며 “삼성은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을 이끌며 고객들에게 유비쿼터스 시대의 혜택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 콜로니 포레스터 리서치 회장은 “기술의 발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사회의 변혁은 많은 변수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기술에 사회가 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니 회장은 “한국에서 삼성이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TV와 휴대폰 사업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경영스피드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콜로니 회장은 휴대폰과 TV에 비해 디지털홈과 PC 등이 유비쿼터스 디지털기기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해 휴대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이콥스 사장과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 “한국 디지털, 활판기술 이어 세계에 두 번째 선물”

정치인에서 미디어 경영자로 변신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디지털화를 높이 평가했다. 앨 고어는 “한국의 유비쿼터스는 세계 최초의 인쇄술에 이어 전 세계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세를 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큰 성과”라며 한국의 디지털기술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앨 고어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1453년에 쿠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먼저 발명된 것”

이라며 “현재 한국의 디지털기술은 놀라운 수준에 이르러 전 세계가 활판인쇄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움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디지털기술만이 세계변화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첨단 기술이나 디지털장비에 현혹돼 다른 것들을 간과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기술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세계화의 진행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6개월 전 방문 때와 다를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술이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유비쿼터스도, 어떻게 하면 좀더 낮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휴머니즘이 그것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는 휴머니즘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앨 고어는 진 장관이 발표한 IT839 가운데 하나로 진행중인 가정용 로봇 계획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로봇이 청소도 하고 어린아이도 돌봐준다는데 로봇이 청소를 하는 동안 아이는 무엇을 하느냐”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인구증가로 온난화가 진행돼 100년 후에는 해수면이 1m 가량 높아지는 전세계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이러한 때에 과연 로봇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쟁무기의 개발과 환경파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어는 한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50년 간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개발됐다”며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구 보호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어는 1990년대 초 미국 부통령 시절 ‘정보고속도로’란 용어를 유행시켰으며, 최근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이블방송업체 커런트를 설립했다.

고어는 컴퓨터와 인터넷 파워 이용자이기도 하다. 매킨토시 컴퓨터로 비디오를 편집하고, 신분을 숨긴 채 채팅을 하다 “내가 바로 부통령 앨입니다”라고 밝혀 상대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아이비엠 호환 피시와 맥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란 질문에 “삼각팬티냐? 사각팬티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윗트에 넘치는 대답으로 호평을 받았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에게 진 뒤에는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고문과 애플컴퓨터의 이사를 거쳤다. 현재 애플컴퓨터 이사라도 재직중인 그는 오는 8월 미국에서 인터넷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쌍방향 TV방송국을 개설하는 계획도 추진하는 등 미디어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데릭 리도우 아이서플라이 사장

# “삼성·LG 휴대폰 모델 수 줄여야”



삼성과 LG전자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려면 모델 수를 줄이고 타깃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디지털포럼 참석차 방한한 미국 아이서플라이의 데릭 리도우 사장은 “현재 60개 업체가 내놓은 2,700개 모델 중 한국산 제품 비중이 27% 차지할 정도로 모델 수가 많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시장에서 보다 높은 점유율을 얻으려면 출시 단말기 모델수를 줄이고 지역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모델당 연평균 매출이 1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반면 삼성과 LG전자는 4,0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순위에서 삼성과 LG가 높은 위치를 차지한 것은 단말기 모델을 많이 출

시한 덕이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많은 수의 단말기 모델만 내놓은 것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리도우 사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용자 분포를 고려한 정교한 마케팅 전략만 구사한다면 단말기 1위 등극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도우 사장은 휴대폰시장 전망과 관련해 “복잡성과 다기능을 추구하는 고가 휴대폰과 단순성을 추구하는 저가휴대폰 시장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제조업체들은 양방향 모두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도우 사장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와이브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구축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폐쇄적인 표준으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좀더 글로벌한 오픈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한국의 표준을 따른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802.16e 표준과 거의 동일한 규격을 채택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802.20을 채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어느 진영이 이길 것인지 장담할 수 없지만 한국은 아주 많은 것들이 결정(와이브로)에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나이스 빗 세계적 미래학자, ‘메가트렌드’ 저자

# “미 경제 없어질 것, 세계는 도메인 사회로”

‘메가트렌드’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이 “세계는 이제 지리적 구획에서 경제활동에 따른 ‘도메인’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나이스빗은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로 묶이고 있으며 ‘도메인’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스빗은 “도메인(domain)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개체로, 작게는 개인사업자에서 크게는 대기업에 이르는 개인, 제도, 기관 등을 의미한다”며 “세계는 이제 국가별 구분에서 경제활동에 따른 ‘도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메인의 개념에 대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화번호 가운데 사용하는 일부 전화번호가 우리만의 도메인”이라며 “성공은 우리 도메인 내에서 잘 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기업에서 시작된 한류(韓流)는 ‘아시아의 도메인’이라며 핀란드의 노키아나 한국의 삼성을 도메인의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세계화에는 적절한 정도로 분산화와 비집중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세계의 성장은 비집중화(Decentralization)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나이스빗은 “GE는 CEO가 8명이며 존슨 앤 존슨은 CEO가 200여명”이라며 “시장에서도 비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합병은 멸종 위기의 공룡이 생존을 위해 다급한 짝짓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연설 내내 비집중화를 강조한 존 나이스빗은 “비집중화를 통해 인간적인 규모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서적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닷컴(www.amazon.com)에 들어가면 ‘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글이 나오듯이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규모



(human scale)을 실현한 예”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집중화는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개개인들의 활동양식을 모으면 그것이 세계화로, 따라서 세계화는 상향식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스빗은 “한국이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가능했다”며 “도메인 중심의 세상에서 성장

마이클 파월 FCC위원장

# “한국의 방통규제기구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미래형 규제는 소비자 중심이어야 한다.”

마이클 파월 전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 의장은 ‘미래형 규제: 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기존 사고방식을 버리고 과감한 사고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디지털 혁명과 컨버전스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도 변

해야 한다”며 “대대적이고 과감한,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하나 케이블, 라디오 등 예전에는 규제의 관할권이 명확했지만 이제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이 등장하고 소비자가 콘텐츠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규제당국이 중앙집권적으로 규제를 해왔고 기술을 몰라도 됐지만 지금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먼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의무도 부과되고 있다”며 “모든 서비스의 장벽을 철폐하고 플랫폼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월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 속에 한국이 추진중인 방통규제기구 통합에 대해 “이 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적을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정에 관여된 인원이 많아질수록 결정에 이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와 역행하며 많은 타협과정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입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규제완화vs규제강화’ 논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논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고 “규제를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 기술의 발전을 돕는 규제, 어느 한쪽을 이기게 하거나 지게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규제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K. 파월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을 맡아 통신 방송의 융합 등 거센 통신환경 변화 속에서 관련규제를 총괄 지휘했으며,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인 콜린 파월의 아들이다.

어윈 제이콥스 켈컴 회장

# “미디어플로, DMB보다 경쟁력 우위”

어윈 제이콥스 켈컴 회장은 ‘미디어플로(Media FLO)’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제이콥스 회장은 서울디지털포럼2005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위성DMB가 먼저 상용화 됐지만 다른 국가에는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미디어플로의 장점을 고려하면 시기가 다소 늦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DMB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콥스 회장은 미디어플로의 장점에 대해 “휴대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전력, 주파수 효율성, 채널변경 시 지연시간 최소화 등이 중요하다”며 “미디어플로는 개발 때부터 이같은 요인들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제이콥스 회장은 또 “현재 미국에서 UHF 채널 55번의 라이선스를 획득해 주요 도시를 상대로 미디어플로 방송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어 연말께 시험방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디어플로를 상용화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플로의 한국 상용화와 관련, “현재 정보통신부와 주파수 할당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방송사,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업체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파수 할당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 지원이 없으면 대대적인 시험방송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콥스 회장은 “휴대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의 향상, 방송채널 및 콘텐츠의 빠르고 쉬운 검색, 저렴한 콘텐츠의 효율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아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이사

# “보아 만났을 때 한류 성공 확신”



보아와 이수만씨가 세계 석학 및 미디어 관계자들 앞에서 한류를 자랑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저녁 '서울디지털포럼'에 연설자로 참석해 보아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SM엔터테인먼트의 아시아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이사 겸 프로듀서는 '아시아의 콘텐츠 협력

:한류의 사례'라는 주제로 약 10여 분간 연설, 보아를 연설대로 불러 한류의 성공사례로서 보아를 성공시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 이사는 "13~15세의 아시아 가수를 일본에 먼저 데뷔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보아가 나타나 제 앞에서 웃을 때 미래가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제는 H.O.T나 S.E.S처럼 우리나라 사람을 해외에 프로모션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해외의 인력을 그대로 쓸 것"이라며 서울-베이징-도쿄를 잇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이 이사가 설명하는 '아시아 네트워크'이란 일본의 자본 및 마케팅 능력과 중국의 풍부한 인적자원, 그것에 한국의 컬처테크놀로지를 결합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화 시장이 될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스타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아시아인이 나오지 않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 못 보고, 아시아의 노래를 듣지 않고는 문화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에선 중국인으로 탐을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서를 녹아들게 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서가 녹아든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면 결국 우리가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지 콜로니 포레스터 리서치 사장

# “디지털홈 시장 놓고 경쟁 치열해질 것”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의 조지 콜로니 사장은 향후에 'X인터넷(Extended Internet)'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콜로니 사장은 "2010년까지 140억개의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X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X인터넷은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향후 10년내 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비가 현재의 10억개에서 2010년에는 140억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콜로니 사장은 X인터넷의 가장 큰 격전장으로 디지털홈을 손꼽았다. 그는 향후 3년 간 10개의 사업군이 디지털 홈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10개의 사업군 중 케이블, PC, 게임 업체가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고 유선통신, 콘텐츠, 포털 업체군이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콜로니는 엑스인터넷과 함께 미래의 큰 흐름으로 혁신 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를 꼽았다. 그는 "가치를 공급하는 사슬(Supply Chain)에는 발명자, 변형자, 재정자, 브로커 등 4개의 주체가 있다"며 "미래에는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각 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하며 한가지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의 선두 기업을 묻는 질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았지만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와 TV부문에만 집중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콜로니 사장은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북미시장에서도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면서도 "휴대전화 TV는 디지털홈 시장에서의 통제권을 가진 기기(Controlling Device)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얽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은 TV와 휴대폰 사업에 너무 치중해 경영스피드를 잃는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휴대폰과 TV사업에 너무 빠지면 디지털기 시장에서의 지배력 또한 잃을 수 있다"며 "휴대폰과 TV보다는 정보가전기기와 PC 등이 유비쿼터스 디지털기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틴 테일러 MS 플랫폼 전략담당 전무

# “윈도가 리눅스보다 우수”



마틴 테일러 MS 플랫폼 전략담당 전무는 서울디지털포럼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소유비용, 신뢰성, 보안성 측면에서 윈도시스템이 리눅스와 공개SW에 비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마틴 전무는 반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불리며 MS의 대(對) 오픈소스 전략 수립과 수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마틴 전무는 “최근 리눅스와 공개SW에 대한 인기는 고객들이 실제 혜택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공개SW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본다”며 “실질적인 수치를

비교해보면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마틴 전무는 “윈도시스템은 총소유비용의 경우 경쟁 시스템에 비해서 로엔드에서는 5~6%, 하이엔드에서는 28%까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신뢰성 부문에서 윈도 서버 시스템이 통합기능이 향상돼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눅스 서버에 비해 다윈타입은 12% 가량 짧고, 재구성에 필요한 시간 역시 37%나 짧다”고 덧붙였다.

또 “보안 문제의 경우 3~4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크게 향상됐다”며, “윈도 서버 2003은 제품 발표 후 2년 동안 27개의 위험도 높은 취약점이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윈도 서버 2000의 64개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안위협에 대한 반응시간도 MS가 27일에 불과해 리눅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틴 전무는 윈도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와 관련해 “나쁜 결과가 나와도 공정위의 판정을 수용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기어리 루슨트테크놀로지스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

# “HSDPA·와이프로 앞길 쉽지 않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된 네트워크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 루슨트테크놀로지스의 존기어리(John Gier)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는 향후 네트워크 진화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존기어리는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순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맞춤형된 서비스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얻기위해 직접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스스로 개인의 위치, 기호 등을 파악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압감을 느끼는 현대인들, 특히 전문적인 직업영역에서의 성공과 소비자로서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슈머(prosumer)형’ 이용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현이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어리 CMO는 “현재 세계 통신 시장은 점차 세분화되는 서비스 사용자 계층, 다양화되는 첨단 기기들,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지능화에 따른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네트워크는 정적, 역동적, 선택적인 단계를 거쳐 결국에는 네트워크 스스로가 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습관과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단계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능화된 네트워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루슨트는 현재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 등의 노출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런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선진화된 시장”이라며 “루슨트도 역동적인 한국 시장에 참여와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 상용화 예정인 차세대 통신 서비스 휴대인터넷 ‘와이프로’와 고속상향패킷접속(HSDPA)에 대해서 “한국은 현재 매우 수준이 높은 무선인터넷(EVD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결국 성공의 관건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